

투데이칼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의 경제정책 발표는 많은 국민에게 경제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안도감을 갖게 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을 두고 경제를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두고 단순한 성장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보여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경제 발전 전략은 크게 네 가지다.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AI와 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튼튼한 경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국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기술 선도 성장 분야는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라는 큰 목표 아래 더욱 구체화 된다.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해 산업과 지역 전반에 AI를 확산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AI 기본 사회'를 만들고, 바이오, K-컬처, 방산, 기후테크 등 미래 전략 산업을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여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경제체질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모두의 성장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연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지역별 첨단 산업 배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급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단일 성장 엔진 모델의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 여러 개의 엔진 성장모델로 국가 균형발전을 기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K-농산어촌 정책으로 지방과 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하며, 가계 부채 안정화와 인구 위기 대응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인다. 공정한 성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

심 과제다. 기술 탈취 근절, 소비자 주권 실현, 공정한 노동 시장 조성 등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 흐름 전환과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한 미래 전략 산업 집중 육성, 규제 합리화, 공공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가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AI 기반 유연하고 분산된 전력 시스템 구축과 지산지소의 원전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사용 정책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첨단 산업 집중으로, 미래 세대가 누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한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과 입법 측면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병행된다.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세계 개편과 AI 기반 조세 행정 혁신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951건의 법률과 시행령을 제·개정하여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며,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경제정책 전략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2030년까지 AI 경쟁력 세계 3위,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코스피 5천 시대, 벤처 투자 시장 확대,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67% 달성, K-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등 다양한 경제적 성과를 실현할 계획으로 있어 국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내일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이 주인공인 경제, 기술 혁신과 공정한, 지역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뒷받침되는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은 바로 그 길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민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면 된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다.

사설

지방의원 징계 겸직의 공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라미(www.lamis.go.kr)'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19개다.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라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

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는 개별 의원의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의정활동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제21회 전북수채화협회전

제21회 전북수채화협회전이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는 모두 61명이다. 전북수채화협회는 지난 2004년 10월 창립됐다. 2015년 5월 전북학생종합회관에서 제1회 회원전을 열었으며 2007년 제3회 회원전부터는 거의 해마다 전북예술회관에서 회원전을 가졌다. 2008년 9월 제4회 회원전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했으며 2023년 12월 제19회 회원전은 재단법인 청목미술관에서 열었다. 2024년 지난 해 8월에는 전북 예술회관에서 제20회 20주년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전북수채화협회 회원들은 해마다 맘 흘러 이룩한 작품들을 한데 모았다. 이번에도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 속에서 한 점 한 점 형언할 수 없는 정성들이 가득하다.

수채화는 다른 회화 영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한 아름다움이 있다.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이번에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풍경과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자기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화폭에 담아낸 60여 편의 수채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술에 대한 열정과 꾸준함으로 수채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소재들은 눈에 익은 정겨운 산, 들과 나무, 작은 꽃 등으로 담백한 수채화와 풍성한 색감의 수채화로 완성됐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예술에 대한 감성들이, 시간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꾸준한 손길로 하나하나 작품으로 빚어졌다. 때로는 기쁨이었고, 때로는 교묘한 인내였다. 모든 과정은 결국 창작의 깊은 희열로 이어졌다.

독자제언

신선한 바람이 불고,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은 많은 시민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계절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본격적인 행락철로, 전북도내의 명소와 관광지, 축제 현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인파 혼잡,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저희 경찰관 기동대는 평소에는 집회·시위 현장이나 민생 치안 근무로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지만, 이때가 되면 행락지 주변 혼잡 경비, 안전사고 예방, 교통관리를 위해 방낫없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경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행락철'을 위해

관 혼잡경비단 단순히 현장만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인파 물림이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선유도, 진입제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진입로에서는 차량유도 및 우회조치, 통행로 확보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잡 경비는 단순히 시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 그리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예방 활동입니다.

다. 이러한 종합적인 예방 활동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꼭 필요합니다. 첫째, 질서 있는 관람이 안전을 지킵니다. 축제나 공연장 등에서는 밀집을 피하고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사고는 항상 '살마'하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둘째, 교통질서 준수는 필수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행락지에서 불법 주정차는 도로 혼잡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

이 되며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통행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상 상황 시 침착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 시 주변 경찰관 또는 소방관, 주체측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찰관 기동대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행락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협조가 더욱더 안전한 행락철을 만들어냅니다.

구인회 전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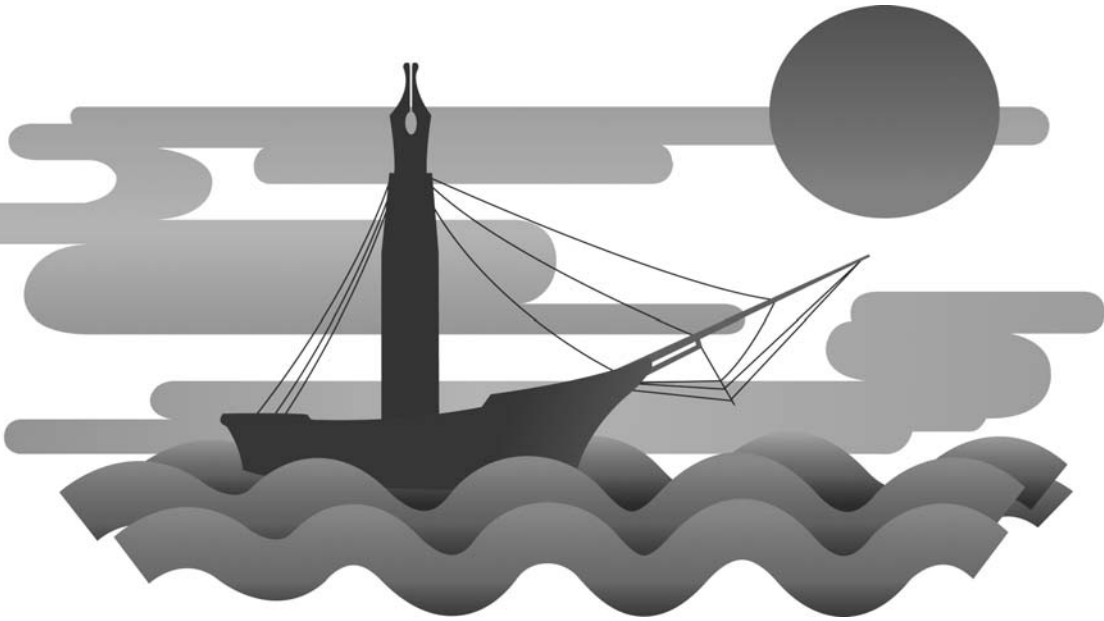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